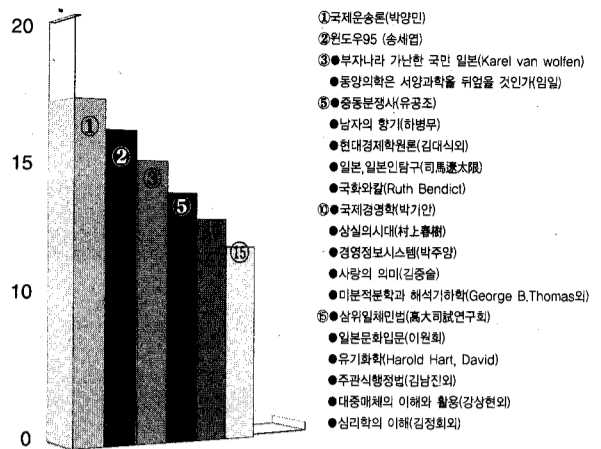


그래픽 뉴스

4월의 최다 '대출도서'

웅장하고 아름다운 우리 학교 중앙도서관. 이러한 도서관을 이용하는 우리 학교 학생들은 과연 어떤 책을 많이 읽을까?



그래프를 보면 의외의 결과가 나온다. 5위 남자의 향기(하병무)와 10위 사랑의 의미(김중술), 상실의 시대(村上春樹) 등 세 편 소설이고 그의 대부분은 전문서적이다. 3월과 비교해 볼 때 중간고사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이상은 4월 1일부터 31일까지 서울캠퍼스 대상으로 조사한 것임.)

경희 그 한 주의 역사



1949. 5. 12 법정과,중국어과,체육과로 신홍초급대학 설립

1955. 5. 12 대학주보 창간, 98년 오늘로 43주년을 맞이하니 세월이 어찌 무상타 않으리오

1958. 5. 15 The University Life 창간

1972. 5. 11 459호 1면에 눈을 끄는 광고가 있어 잠시 다음 아닌 "골프장 캐디 모집"이 그것이다. 잔디는 파란꿈 우리 모두 푸른 꿈을 키우자고...

1982. 5. 10 음대인들의 작은 경연의 장 '수음악회'가 16년전 오늘 실시되었고 현재는 '화·목·음악회'가 그 명맥을 잇고 있음

1982. 5. 15 57년 준공된 체육대학관 전소 후 재완공(위 사진)

교내단신

한국어원학회 연구발표회

지난 9일 서울캠퍼스 본관 대회의실에서는 한국어원학회(회장: 서정범(국어학) 명예교수) 주최 '제3회 연구발표회'가 열렸다.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개최된 이번 발표회에서는 '갈가지'의 어원, 법정지명파와 통용지명, '인절미·잡숫다'의 어원, 말발의 '말'에 대해, 수량 단위명사의 어원 등을 주제로 서정범 교수 외 6명의 강사진이 연구, 발표했다.

서울 C.R.S 인증시험 23일

서울캠퍼스는 98학년도 1학기 C.R.S. 인증시험을 오는 23일 시행한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영어, 전산분야에 한해 실시하는 이번 시험의 응시자격은 △1996학년도 이후 입학자 △1997학년도 2학기 등록을 필하고 학점을 3학점 이상 취득한 자 △C.R.S. 분야별 지정과목의 학점을 3학점 이상 취득한 자 등이다. 원서는 오늘부터 오는 20일까지 수업과에서 접수하며, 접수시 응시원서 1부만 제출하면 된다.

대의 연구과제 관련 홈페이지

연구산학협력처는 교수의 대외기관 및 센터의 연구사업계획과 관련하여 각 기관의 홈페이지를 개별적으로 안내 및 홍보할 예정이다. 주요 교수와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기관 6곳을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홈페이지주소는 다음과 같다. △ 한국과학재단 www.kosf.re.kr △ 한국학술진흥재단 www.krf.or.kr △ 농림기술관리센터 www.aprc.re.kr △ STEPI re.stepi.re.kr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www.kisdi.re.kr △ 통일부 www.unikorea.go.kr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주간)
발행편집인	조정원
주 간	최상진
편집장	최수정
인쇄인	최영희
인터넷대학주보	http://news.younghee.ac.kr
인터넷전자메일	zpknews@chollian.net khnews@unifet.co.kr
구독료 / 1년 1만원	구독문의 / 961-0093~0094

캠퍼스 소식

영교과 '교직준비특강' 개최 사범대학 영어교육학과 주최로 오는 14일 오후 1시 '교직준비특강'이 실시된다. 국제교육원 영상강의실에서 실시되는 이번 특강에는 이지연(90, 동호 공업고등학교), 윤성준(90, 대명고등학교), 김귀현(94, 98임용고시 합격) 세 명의 강사를 초청, 교직의 비전 및 교사의 사명감 등에 대해 강의한다. 이 강의는 취업정보실의 후원으로 이뤄지며 교직원 임용고시를 준비중인 학생들이면 누구나 들을 수 있다. 또아리 문화제 국문과 동아리 연합회에서는 오는 12일 오후 3시부터 크라운관에서 '또아리 문화제'를 개최한다. 이번 문화제에서는 영화동아리 '1895', 연극동아리 '미지배', 노래패 '공상가치우' 등이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외에도 풍물, 춤, 클래식 합주 등의 공연을 계획 중이며, 개그 콘테스트도 개최한다. 개그 콘테스트 참가희망자는 당일까지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

체육과학대 시설물 11일부터 전격 개방

타 단대생과의 이질감 극복,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 되길

체과대는 체육교육관과 운동장을 오는 11일부터 개방한다. 체과대의 전유물처럼 인식되어 왔던 체과대의 시설물을 전격적으로 개방하게 된 것은 체과대 내에서의 독자적 통합이 아닌 타 단대생들과의 공동체적 통합을 바라는 뜻에서 기획되었다.

이번에 개방하게 되는 시설물은 탁구장, 농구장, 배드민턴장, 하키장이며 앞으로 약 1개월 동안 이용자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새로운 프로그램 등을 신설할 예정이다. 시설별 수용원은 탁구장이 7개코트 40여명, 농구장이 30여명, 배드민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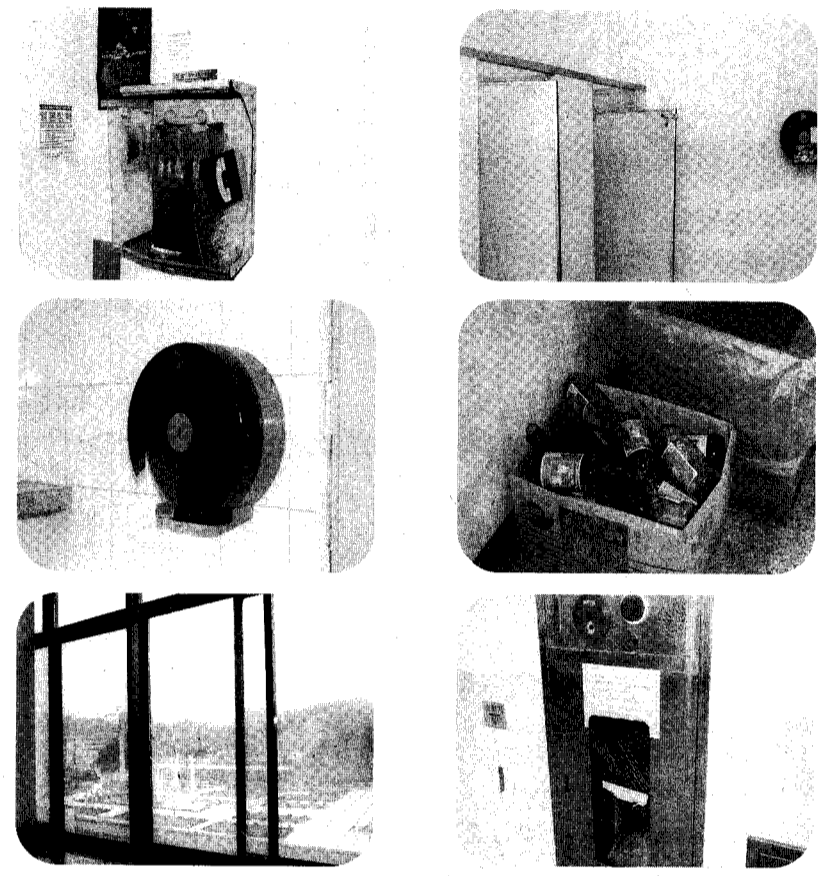


▲오는 11일부터 개방하게 될 체육교육관 내 배드민턴장, 탁구장, 농구장

시설명	일	화	수	목	금
탁구장	오후4시~오후6시	오후4시~오후6시	오전10시~정오	오후4시~오후8시	오전10시~정오
농구장	오후3시~오후5시	오후3시~오후5시	오전9시~정오	오후3시~오후6시	오전9시~정오
배드민턴장	오전9시~정오	오전9시~정오	오후6시~오후10시	오후6시~오후8시	오후6시~오후8시
하키장	하키부 연습시간을 제외한 시간				

수원 학생회관 시설 파손 '심각'

모두가 사용하는 공공시설임을 인식해야



▲어디라고 할 곳 없다. 학내 공공 시설 파손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수원캠퍼스 학생회관을 포함한 전반적인 시설물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태도에 대해 학내 일각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지난 7일 학생회관을 차 측마다 조사한 결과 '파손된 승강기 버튼, 학내 곳곳에 깨진 유리창, 부서진 소화전, 파손된 공중전화 부스, 벽에 찍힌 발자국, 떨어져나간 화장실문, 쓰레기통마다 가득한 술병 등'이 발견되어 학교에 대한 학생들의 의식수준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형수 경희발전추진위원회장은 "밤마다 학생회관에는 거의 매일 술에 취한 학생들의 주먹질과 발길질로 인해 많은 시설물이 부서지고 있다"면서 "학교에 대한 기본적인 애교심이 부족한 일부 학생들로 인해 많은 다수의 학생이 피해를 입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도서관의 경우 주로 대부분의 공간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도서관 전면 앞에서 흡연을 하는 일부 학생들이 담배꽂초를 바닥에 버리는

경우가 비밀비재하게 발생,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제인이 학교측에 담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정규진 사서과장은 "학내 곳곳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쓰레기와 담배꽂초, 강의실 책상 위의 낙서, 이모두를 학생들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지나친다"면서 "제재조치보다는 자율적으로 행동을 절제하는 모습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19일 '농구부의 날'

우리학교 농구부는 지난 4월 20일 막을 내린 '98 MBC대 전국대학농구대회' 우승을 기념하고자 오는 19일을 '경희대 농구부의 날'로 지정, 기념 행사를 개최한다.

- 김수근 체육위원장, 이종희 체육부장, 최부영 농구부 감독, 한준택 농구부 동문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될 이번 행사의 일정은 다음과 같다.
 - 오후 4시 30분 서울캠퍼스 체육관 동문대 재학생경기
 - 오후 6시 30분 선동호 농구인의 밤

취업정보실 13일 모의 토익실시

취업특강 "경제학 원론"

취업정보실은 오는 13일 오후 두 번 째로 모의 토익을 실시한다. 취업시 치뤄왔던 영어 필기시험 폐지 후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토익의 중요성 인정, 생활속 차원에서 매일 실시되는 모의 토익의 현재 지원자는 37명이며 13일 정오까지 취업정보실에서 접수를 받는다.

시험은 밤대 201 강의실에서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치뤄지며 시험에는 연필이나 수성펜이 필요하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는 소정의 상품이 주어지며 기타 문의 사항은 학생회관 1층 취업정보실(961-0167)로 연락하면 된다.

취업특강 "경제학 원론"

중심으로 7급 공무원, 공사, 교사임용고시와 그의 일반 취업 준비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강의를 실시중이다. 강의는 총 8주간 실시되며, 매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토요일은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현대 경제학 원론(박영사)'을 교재로 문리대 402강의실에서 이루어진다.

수강료는 3만원이며, 접수는 오늘부터 6일까지 취업정보실(961-0167-8)에서 받는다.

러시아 관련 1천2백여권 기증

지난 4월 30일 故동 안 교수의 뜻을 받들어 소장도서 1천2백여권의 러시아 관련 서적이 수원캠퍼스 도서관에 기증되었다.

기증된 책에 대해 정규진 사서과장은 "러시아 문화의 귀한 자료를 보내줘서 교묘사학원 강사님 소회영씨를 초청, 취업에 필요한 일반적인 경제학 상식을

"휴지대신 수건으로"

가장대 화장실에는 "IMF입니다. 화장지를 아껴쓰기 위해 수건을 사용하십시오 (수건은 매일 세탁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다른 단대에서는 볼 수 없는 수건이 걸려있다.

가장대 학생회장 은희정(성영 96)양은 "저희 단대는 특히 여학생이 많아

영상 뉴스



영상 뉴스

교수·대학원생 한마당 개최

지난 5월 8일 서울 캠퍼스에서는 '98 교수·대학원생 한마당'이 대운동장과 임강 교실에서 개최되었다. 총 1백여명의 교수와 학생이 참여한 가운데 1부 체육대회와 2부 노래자랑의 순으로 이루어진 이번 행사는 대학원 총학생회가 주최하고 교수 협의회가 후원했다. 체육대회는 교수 학생 릴레이, 길거리농구, 축구 등의 경기가 이루어졌으며, 저녁 임강 교실에서는 대학원생과 교수들의 노래자랑이 열렸다.

캠퍼스 개방기간 응모 당첨자 윤현기, 장정임, 전준옥씨



▲왼쪽에서 두번째 부터 전준옥씨, 장정임씨, 윤현기씨

"경희대는 여러번 와도 또 오고싶은 대학"

지난 6일 오후 3시, 서울캠퍼스 교무처장실에서는 지난달 11일부터 14일까지 실시한 캠퍼스 개방기간 중 방문자를 대상으로 접수받은 응모권의 당첨자에 대한 기념품 전달식 및 간담회가 열렸다. 당첨자는 윤현기(서초구 잠원동)씨, 장정임(이문 3동)씨, 전준옥(강동구 상내동)씨로 응모권에 기입한 건의원에 보인 성의 정도를 선정 기준으로 삼았다.

당첨자 윤현기씨가 우리학교 중 가장 인상깊은 장소로 꼽은 곳은 선동호와 자연사 박물관이다. "선동호는 도심 속의 폐쇄된 아늑함을 전제 주기에 충분했고, 자연사 박물관은 자연학습을 하기에 충분한 곳으로 기억하고 있다"며 "빛깔을 구경하기 위해 들렀다가 잘 꾸며진 자연사 박물관까지 관람하고 갔는데 이러한 영광까지 얻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학교 주변에 살고 있는 장정임씨는 "다른 대학에 비해 느낌이 좋아 여러 번 와도 또 오고 싶은 대학"이라며 우리학교를 평가했다.

한편 우리학교 동문으로서 원형도서관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는 전준옥씨는 "점차 발전하는 모교를 방문하면 사업을 하면서 힘들었던 점도 잊힐 정도"라며 "우리나라 어느 대학 못지 않게 잘 갖추어진 시설을 심분 활용해 이제는 내실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당첨자들은 "균형있는 성장발전을 이루길 바란다", "경희대 학생들이 건전한 대학생상을 추구하길 바란다"는 등의 당부도 잊지 않았다.

그 외에 이 자리에서는 '행사 시기가 약간 늦었다', '응모권 접수와 관련한 준비가 미비했다'는 점 등 이번 행사의 부족했던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강남이 기자)